

# 광주에 대한민국의 Crypto Valley 를 만들자!

광주 MBC 칼럼

이흥노 교수

7 월 12 일

지난 6 월 말경에 Crypto Valley 컨퍼런스가 열린 스위스 쭈크시를 방문했습니다. 쭈크시는 전세계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 성지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계의 암호화폐 50%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쥐리히 시로부터 기차로 약 1 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라고는 하지만 인구는 3 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의 면적도 21 제곱 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구요. 광주 동구가 49 제곱킬로미터니깐, 동구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시가 소유한 땅은 대부분 농경지와 호수로 되어있습니다. 도시라고 할 만큼 개발된 곳은 시 면적의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쭈크는 그러나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개인 소득 1 위 도시입니다. 낮은 법인세 와 친 기업 정책으로 일 만개에 가까운 기업이 소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주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2014 년에 동지를 튼 암호화폐 이더리움 재단도 쭈크에 있습니다. 쭈크가 암호화폐밸리로 전세계에 알려진 배경에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2016 년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으로 받는다고 선언하였고, 2017 년 1 월부터는 암호화폐연합회를 만들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도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쭈크시의 중심에는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쭈크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에는 오리가 놀고 있고, 사람들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 호수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깁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고전건축물들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고, 현대식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4 차 산업 시대 이전까지는 실물 세계와 실물경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0 년 이내에 센서 이코노미, 로봇 이코노미 등 가상 세계와 가상세계 속 경제가 급격하게 커지는 세상이 옵니다.

실물 세계에 화폐가 있어 인간과 인간 간의 거래 질서를 확보할 수 있었듯이,  
가상세계에서는 Things 즉 사물 들 간의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때,  
광주를 아시아의 Crypto Valley 로 선언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서울, 경기도, 나아가 아시아에는  
암호화폐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면, 광주의 오랜 문화와 전통,  
살기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들을 광주로 이끌 것 입니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4 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4 차 산업혁명은 지난 2 년간 우리가 많이 학습했지요.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 입니다.  
광주의 동구보다도 작은 쭈크도, 바꾸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 과 미래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10 년 후,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소득 1 위,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을 꿈꿔봅니다.

끝